

開 會 辭

李 泰 旭

〈西江大學校 東亞研究所長〉

金樹基 駐韓 中華民國 大使任, 朴弘 總長任, 梁好民 先生任, 그리고 臺灣에서 第12次 韓中學術會議를 위하여 오신 林碧炤 團長을 비롯한 中國學者 여러분, 이 회의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중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韓國學者和 內外貴賓여러분, 저는 第12次 韓中學術會議를 주관하는 西江大 東亞研究所를 대표하여 여러분들의 이 회의 참석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社會主義 體制變化: 韓國側과 中國側의 評價”라는 주제로 제12차 한중학술회의를 갖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社會主義의 體制가 붕괴내지 몰락하여 가는 현시점에서 보아 매우 시의적절한 학술토론회가 될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東西和解와 새로운 世界秩序 摸索, 특히 東亞世亞의 새 질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韓中兩國은 여전히 民族과 國土의 분단이란 고통을 겪으면서 自由와 安全守護의 걱정을 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른 社會主義圈에서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이미 깨닫고 이로부터 탈피하여 自由民主國家와 市場經濟體制를 이룩하기 위한 改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北韓과 中國大陸에서는 여전히 강경보수파들의 집권으로 과거의 체제고수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조류는 이미 東西和解와 和合, 自由民主를 바탕으로 한 새 질서 구축, 開放과 經濟體制改革을 통한 經濟協力の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들은 北韓과 中國大陸에서는 어떤 體制 내지 社會變化가 있으며 그리고 그 未來變化의 가능성을 우리 나름대로 評價分析하고 서로 意見을 交

換하는 學術討論會를 가짐으로서 우리 서로 모두 갈망하는 조국 통일의 길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는 것이 이 회의 意義라고 생각합니다.

韓中兩國은 같은 文化圈의 오랜 友邦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이를 그 무엇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힘을 합쳐 서로 도우며 東亞細亞, 더 나아가서 世界 新秩序 摸索에 같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점에서 오늘 같이 서로의 共同關心事에 대한 討論의 場을 마련하는 것도 두 국가간의 오랜 유대관계를 민간차원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밑거름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번 學術會議에서는 兩國의 저명한 學者들께서 참여하시어 진행, 발표 그리고 토론을 하십니다. 따라서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중국에서 오신 林主任과 中國側學者들께서 이곳에 체제하시는 동안 즐거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 회의를 후원해주신 統一院에 감사드리며, 그리고 회의준비를 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었던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